

“GMC, 성서적 결혼관 지키며 새롭게 시작할 것”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됐던 KUMC 한인교회총회 2022년 연차총회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와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평신도연합회(회장 안성주 장로)는 지난 14일 뉴욕/뉴저지 지역 한인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연합감리교회의 현실과 글로벌감리교회에 대해 소개했다.

한교총은 <한인교회의 미래, 글로벌감리교회(the Global Methodist Church - GMC)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 UMC)의 현실과 KUMC의 진로>라는 제목의 안내문에서 한인교회가 속한 다수의 UMC 지역연회가 동성애자 목사안수와 파송, 결혼예식을 금지하는 교단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성서적 결혼관으로 고

백하는 GMC의 교단법과 대비했다.

한교총은 "미국 내 UMC 53개 연회 중 26개 지역 연회는 이미 전통주의 장정불복종을 결의했고, 다수의 연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안수와 파송 및 동성결혼 집례가 이루어져도 장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UMC는 교단구조 변화와 동성애 이슈 등으로 깊은 분열과 갈등으로 병들어 있고, 미국 내의 상당수 UMC 연회는 교단분리합의안의 정신과 약속을 무시하고, 교회 건물과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없도록 막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UMC의 교단리더 감독들은 '공공연회 현재의 장점을 여기면서도 앞으로 전통주의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UMC 지역연회 동성애 관련 교단법 미준수 지적 성서적 결혼관 고백하는 GMC 교단법과 대비

말하지만,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리더들이 '법이 바뀐 다음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은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UMC는 지난 50년 동안 급격한 교인수의 감소를 경험해 왔으며, 그동안 교단/연회 중심의 교회개혁운동은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패의 연속이었다"며 "UMC 선교는 신앙선배들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미미한 선교구조를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교총은 GMC를 소개하면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성경의 자의적 해석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성서적 결혼관 수호를 위해 GMC 교단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며 "GMC 교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서적 결혼관을 지키며, 교권주의로부터 단호하게 분리될 교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GMC는 향후 7년간 미국 내에서 1500개의 교회, 미국 외에서 2000개의 교회를 개척할 계획으로 총회본부 전체 예산규모의 60%를 교회개척을 위해 투자할 것"이라며 "GMC는 UMC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뒤로하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의 은혜로 사는 제자를 세워내는 선교적 교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그동안 UMC의 높은 연회분담금과 낮은 참여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UMC 교단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법률비용 등과 같은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교단을 위한 교회의 연회분담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GMC는 총회 기관과 연회구조를 간소화시켜 현재 UMC의 연회분담금 규모를 50% 수준으로 줄이고 GMC가 제시한 한인 특별연회를 통해 한인교회 목회자와 평신도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교단 안에서 한인공동체의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철구 목사는 "다수의 전통주의 입장을 지닌 교회들이 UMC교단을 떠나는 상황에서, UMC를 떠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감독과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인교회의 미래를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UMC 교단의 현실 속에서 신앙적 양심에 따른 개체교회의 선택이 여전히 존중 받아야 하고, GMC와 UMC의 분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은혜롭게 진행되어 미래에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성경 읽는 미국인의 92% “성경 통해 변화 경험”

성경을 읽은 미국인의 90% 이상이 "성경 메시지가 삶을 변화시켰다"고 답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지난 8월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가 발표한 '2022 미국 성경 현황 보고서'(State of Bible : USA 2022)의 개정판으로, 성경의 의미와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7가지 주제를 다뤘다.

미국성서공회는 1월 10일부터 28일까지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18세 이상 성인 2,5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1년에 3~4회 성경을 읽는다는 이들 중 92%가 "성경의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성경 읽기는 책이나 앱을 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어 "놀랍게도 성경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의 38%가 '성경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답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교회에 가끔 출석하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았을 수 있다. 과거에 성경

읽기를 중단했지만 성경으로 변화된 경험을 가졌을 수 있다. 또는 친구나 가족이 그들에게 성경 진리를 이야기해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성경 사용자들에게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응답자의 약 절반(48%)이 "한 번에 몇 구절씩 읽는다"고 했다.

이어 "기분에 따라 구절 읽기"(40%), 전체 장이나 이야기로 읽기(32%), 일정·계획표 또는 프로그램 사용(26%), 매일 같은 시간에 읽기(22%) 순이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HAPPY Halloween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2.99%이자가 가능
2.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60 Months

NEW 2022 HYUNDAI IONIQ5 SE
 NEW 2022 HYUNDAI TUCSON SE
 NEW 2022 HYUNDAI SANTA FE SE
 NEW 2022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창립 45주년 감사예배

김종규 목사 부임 후 첫 임직식 13명 직분자 세우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김종규 담임 목사)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지난 16일주일 감사예배를 드리고 명예장로 2명 추대와 함께 13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이날 임직식에는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에 제 3대 담임목사로 김종규 목사가 부임한 이후 열린 첫 임직식으로 많은 축하객들이 함께해 축복의 감격을 나눴다.

김종규 담임목사는 “지난 45주년을 한결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고, 원로장로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에 감사 드린다”며 “더 낮은 곳에서 쓰임 받길 원하는 일꾼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설교를 전한 이동진 목사(KAPC 남가주노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창립 45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임직자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회 노회장, 성화장로교회 담임)는 예배소서 1:11-14절을 본문으로 ‘은혜를 감당하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동진 목사는 “성도와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웃과의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 성품을 담고 체험해야 한다”면서 “임직은 하늘에 기록되는 영광스런 직분이다. 임직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라”고 전했다.

임직자를 대표로 답사를 전한 임신혁 장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사랑에 감사한다. 담임목사님과 함께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종규 담임목사의 인도로 유희근 장로의 대표기도, 시온찬양대의 찬양, 이동진 목사의 설교, 원로장로 추대와 답사, 임직서약, 안수기도, 공포, 유희호 선교사의 권면 및 축사, 임영민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원로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인규 기자

재일교포 3세 목회자의 절규 “우리가 먼저 일본인을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하자”



미국에서 일본선교를 하는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마사노부 아라이 목사(오른쪽) ©기독교일보

Atcs Global Church (담임 박은성 목사)가 개척설립 4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남가주에서 일본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집회를 가졌다.

집회를 준비한 박은성 목사는 “교회설립 4주년을 맞아 일본 선교사님을 모시고 일본 선교를 위해 헌금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바꾸셔서 미국에서 일본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서 “함께해주신 일본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하다. 일본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일본교회 찬양단 Arck MV Strings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박은성 목사의 설교 후에 최덕신 목사(Freedom Tokyo Worship Center)가 간증과 함께 직접 작사·작곡한 주옥 같은 찬양을 일본어 버전으로

불러 큰 은혜를 선사했다.

최 목사 이날 집회에서 ‘주의은혜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이름 높이세’, ‘오 기쁘도다 나의 삶’ 등의 찬양과 간증을 이어간 최 목사는 “23살에 송명희 시인을 만나 한 달만에 12곡을 만들고, 5개월 만에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너무나 유명하게 되었다. 이후에 결정적 인생에 실수와 실패를 맞보고 교회에서 아무 사역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알고 계셨기에 실망하지 않으셨고 나의 어떤 부족함과 죄악보다도 큰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다”고 간증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 쓴 곳이 ‘너를 사랑해’라는 곡이라며 이 곡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에이지 오사토 목사(Gardena Valley Baptist Church)는 ‘일본인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

달라’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에이지 목사는 “일본인의 눈을 막고있는 장애물들을 거두어주시고 일본교회와 한국교회가 연합해 한국인과 일본인 앞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달라”고 기도했다.

일본 청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에디 박 (Mission Valley Free Methodist Church)목사는 “일본인 젊은이들에게 세대를 넘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일본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기도했다.

재일교포 3세인 마사노부 아라이 목사는 “미국에서 일본선교를 하는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인도했다. 그는 “한국인으로 부탁하고 싶다. 이제 일본인들이 사랑하자.우리가 먼저 마음속에서 일본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 그 회개 없이는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하나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마사노부 목사는 “예수님은 한국인을 위해서도 일본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린 형제이다. 우린 형제 자매이기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기도했다.

한편, Acts Global Church는 그리스도안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비전으로 2018년 2월 창립됐다. 담임목사가 없이 각각의 부서를 나누어 섬기는 팀 목회가 Acts Global Church의 특징이고 박은성 목사는 리더목사로 섬긴다.

교회주소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인규 기자

자유대한민국 위한 구국기도 철야집회 남가주서 열린다

자유대한민국 위한 구국기도철야집회가 오는 11월 12일(토)부터 13일(주일)까지 대통령 이승만기념관 및 한국참전용사기념관(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에서 열린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과 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집회는 15대,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조유희 의원,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 장군, 지저스 웨이브 김성욱 대표, 김현국 목사, 조현영 목사, 박성녀 목사, 전진용 목사, 정태석 장로 등이 연사로 나서며, 이후호 목사가 ‘교회와 정치, 왜, 목사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나’란 주제로 특별 집회를 인도한다.

이후호 목사는 “거짓 선전과 선동으로 국가를 전복한 주사파 좃몰 시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데 이어, 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는 상황을 미주 동포들은 매우 염려하고 있다”며 “죄악과 더불어 안락한 삶을 누리며, 시대의 흐름에 짐뭇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적대할 수 없기에 이번 집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우리 고국 자유대한민국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다시 세우 기도해야 할 때”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모국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집회에 미주 전역의 기도의 용사들이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의) 754 366-9923

김동욱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승학 장로 “시내산 위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라오즈산”

남가주 학술세미나 열고 시내산 위치 재조명

출애굽의 시내산이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있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라오즈 산에서 발견된 시내산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지난 15일 나침반교회(담임목사 민경엽)와 17일 새생명비전교회(담임목사 강준민)에서 각각 개최됐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김승학 장로는 성경과 전문적 고고학 증거를 바탕으로 구약의 시내산과 미디안광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음을 소개하면서 직접 탐험한 유물과 유적들에 대한 자료들을 공개했다.

김 장로는 2001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있는 라오즈산을 12번 답사하고 역사적 자료를 정리해 ‘가시떨기 1, 2권’을 저술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주치의로 일하다, 아버지(김상태 은퇴 장로)를 통해 ‘시내산이 시나이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우디의 북부 아라비아인 미디안 땅에 있다’는 신학계의 가설을 접하고 출애굽의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김 장로는 세미나에서 자신이 사우디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모세의 장인이

살았던 이드로 집터와 모세가 바로왕을 피해 도망와 있다가 십보라를 만났던 우물, 모세의 우물, 그리고 물을 길어 부었던 구유 등 성경에 나타난 지명들과 일치함을 소개했다.

또 출애굽 여정 중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수르광야와 물 찾아 사흘 길을 헤매다 쓴 물을 달게 마신 마라 지역, 종려나무 칠십 주와 물샘 열두곳이 있었던 엘림, 르비딤 반석, 여호와 닛시단, 출애굽기 19장의 시내광야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제단, 모세가 젊은 청년들과 함께 쌓은 단, 번제단, 깎지 않은 자연적으로 만든 단, 열두 돌기둥, 열두 제사장들이 양과 소를 번제 드리기 위해 짐승을 몰아가던 통로와 이를 증명하는 바위 암각화 등이 존재함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미주성시화 운동본부의 공동대표 송정명 목사는 그동안 시내산 위치가 잘못 전해진 배경에 대해서 “초기 이집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산으로 들어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이 은둔 생활을 했던 근처에서 떨기나무 서식지가 발견되자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곳에 성 카타린 수도원을 건축하고 그 산 정상을 시내산으로 부른 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목사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 이집트를 떠난 이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시내산 세미나를 인도하는 김승학 장로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만약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다면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바로 잡았다.

김 장로는 “그동안 폐쇄적 정책을 펼쳐왔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2019년 9월부터 관광비자가 허용되고 있어 한국 여권은 5-10분이면 비자발급이 가

능해지는 등 성지순례 방문이 매우 쉬워졌다”며 “사우디에는 3,500년 전 출애굽 당시의 고대 바위암각화와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 등 고대 유물이 현장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세계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세마포 호드스 선교회(대표: 켈 안 선교사)는 미주 지역 목회자 및 성도들을 초청해 내년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시내산 순례를 할 계획이다. 시내산 순례는 김승학 장로가 함께 하며 전화로 657)220-4196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김승학 장로는 대구 보건대를 졸업하고 미합중국 재단법인 노아선교원을 수료했으며 중국 북경 국제 침구 연구소에서 연수 받았다. 1980년대에 한의사로 중동에 진출해서 병원에 근무했다. 사우디암립병원 침구과와 뉴제다병원 침구과를 운영했고, 사우디 국왕과 각부 장관, 여러 명의 왕자들을 치료했으며, 16년 동안 메카 주지사(마지드 왕자)의 한방주치의로 일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외무장관 표창, 주 사우디아라비아 특명전권 대사 표창, 차드 공화국 영부인 표창 등을 받았다. 현재 예소아크선교회 이사장이며 저서로는 『떨기나무』(두란노)가 있다.

김동욱 기자

예장 대신 미주노회 신임노회장으로 김성광 목사 선출



하늘영광교회에서 진행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미주노회 제77회 가을정기노회

제77회 가을정기노회 개최, 교회간 연합과 협력 다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미주노회 제77회 가을정기노회가 지난 11일 하늘영광교회(담임 김성광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노회에서는 노회장으로 김성광 목사(하늘영광교회)가 선출됐으며, 부노회장에 권오달 목사(에덴장로교회), 서기에 지동근 목사(베이크스필드 아름다운교회)가 선출됐다.

노회에서는 이민 교회의 상황을 배려하면서도 노회 질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교회 간 연합과 협력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기

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박용기 목사(성서장로교회)의 인도로 강기운 목사(남가주 선린교회)가 “멈출 수 없는 사역”(행 5:4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이민 목회의 다양성과 이민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목회 방향을 제시하며 교회 개척이나, 담임 사역만이 아닌 이민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다양성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역자라면 어떤 상황과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며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사역을 준비하며, 우리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김동욱 기자

“가정 폭력으로 학대 받는 여성들을 기억해주세요”

제3회 함께하는음악회 오는 23일(주일)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푸른 초장의 집’ 후원을 위한 제3회 함께하는 음악회가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오는 23일(주일)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6959 Knott Ave. Buena Park)에서 열린다.

가정폭력으로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해 셀터를 제공하는 푸른 초장의 집은 1993년에 세워진 이후, 남가주에서 29년 동안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무료로 안식처 제공해 왔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 상담을 진행하고, 24시간 핫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밀 보장 전문 상담, 법적 도움, 가정폭력 인식, 부모 양육 지도, 내적 치유사역, 자기 향상 등의 교육 을프로그램, 직업학교 안내, Cal Works, WIC 등의 정부 보조금 신청,

자녀 학교 및 의료문제, 봉사자 및 가정 폭력 예방 세미나, 극빈 가정에 클라이언트 그랜트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께하는 음악회 기획위원회’가 주최하고 오렌지 미션콰이어(단장 이경일)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Orange Mission Choir, 감사한인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Rahum Women’s Choir, Grand Festival Choir 네 개의 합창단이 연합하여 연합합창단으로 연주한다. 특별출연으로 테너 백동휘, 소프라노 이영주, TKC 챔버 앙상블이 나선다.

김동욱 기자

▶문의: 이경일 OMC 단장 (714)393-4003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오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OC전도연합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개최

오는 24일(월),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에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지난 8일 에반겔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10월 조찬기도회를 갖고,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오는 24일(월)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되는 제3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는 출인원 시 2만 달러 현금을 비롯해 한국 왕복항공권, 골프용품 및 생활용품 등 푸짐한 경품을 내걸고 교회와 단체, 개인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신용 회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낯선 오지의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은 우리보다 더 할 것"이라 말하고 "선교사님들께 적으나마 힘이 되고 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합회 이사님들, 임원들,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10월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대회는 OC교협 회장 심상은 목사가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우수 선수에 대한 시상과 김창달 장로의 연주, 공연기획팀의 공연, 경품

추첨 등 기쁨이 가득한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골프대회 참가비는 150달러이며 그린 피와 점심, 저녁 만찬이 포함되며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이 제공된다. 골프대회 참가신청은 신

용 회장(562-399-2022)이나 윤우경 이사장(213-500-5449)에게 연락하면 된다.

신용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10월 기도회는 한성준 회계의 대표기도에 이어 미주 CBMC 지도목사인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 담임)가 "새 술은 새 부대에"(마 9:14-17)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안신기 목사는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을 힐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주목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대표기도에서 한성준 집사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자들이 은혜 받고 연합회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했고, 합심기도 마무리 기도에서 윤우경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땅에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병중에 있는 이사들, 고통의 연합회 선배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했다. 김동욱 기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한인 커뮤니티 정치력을 높입니다”



왼쪽부터 조봉남 이사장, 조이스 안, 헬렌 이, 제넷 케오 콘클린, 써니 박.

선거 공직 출마 여성 후보자 한인 유권자 투표 독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다. 카운티 선거국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권자들을 위해 이중언어 선거요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우리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이 이중언어 선거요원에 신청해 언어나, 투표 방법에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를 위해 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중언어 선거요원 신청 문의는 전화 714-567-7321 또는 이메일 Recruitment@ocvote.gov 로 연락하면 된다.

투표는 집에서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는다. 투표지를 하나 하나 보면서 중요한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를 선택 해 박스에 검정색 또는 파랑색 펜으로 칠하면 된다. 투표지를 동봉된 반송 봉투에 넣은 후, 반송 봉투 뒤에 유권자의 싸인, 날짜, 이름 정자, 그리고 주소를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반송 봉투에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반송 봉투에 넣어진 투표지를 정해진 투표 센터에 직접 갖다 주어도 되고, 드랍박스 장소에 가서 넣어도 된다. 우편 투표용지는 11월 8일 선거날까지 선거국에 도착하면 좋다. 사정이 생긴다면 11월 8일 우체국 소인이 찍일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조기 투표소 위치와 투표 시간 등의 정보는 www.ocvote.gov 를 통해 바로 볼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오는 11월 8일 선거 오렌지 카운티 공직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들과 한인 커뮤니티 리더가 공동으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 후보자 써니 박, 부에나 파 시 1지구 시의원 후보자 조이스 안, 사이프레스 시 시의원 후보자 헬렌 이, 라팔마시 시의원 후보자 제넷 케오 콘클린 후보자가 참여했다. 한인 커뮤니티리더로는 오렌지카운티한인회 조봉남이사장이 함께했다.

써니 박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는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소수민족 후보자, 특히 여성 후보자들이 공직에 출마했다. 이는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바람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해 참여해 커뮤니티 정치력 강화에 참여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헬렌 리 후보자는 "선거 참여에 영어 언어

제2차 샬렘 목회자·사모 리더십 세미나 "회복과 치유의 시간 됐어요"



제2차 샬렘 목회자·사모 리더십 세미나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밝게 웃고 있다.

GIFT 상담치유 연구원(대표 리더아 전 박사, 전달훈 박사)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50명의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제2차 샬렘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당초 30명을 정원으로 했지만 신청자가 부쩍 늘어나면서 정원을 확대했다.

전달훈 박사와 리더아 전 박사가 강사로 나선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와 사모들의 내면 탐색과 치유를 통해 건강한 영성을 갖도록 했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전달훈 박사와 리더아 전 박사가는 다양한 임상경험과 전문지식과 함께 성경

적 진리와 영성을 나누며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힘과 안식을 제공했다.

리디아 전 박사는 "많은 목회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목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인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샬렘 세미나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웃고,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고 서로가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전 박사는 이어 "이번 세미나는 평신도와 개인들이 조금씩 힘을 모으고, 헌신된 섬김으로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섬긴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목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누리고, 더욱 즐겁게 목회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www.anointingchurch.org

The 특별한 금요일예배

남가주 어노인팅교회에서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The 특별한 금요일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 기간에는 성경의 깊이가 탁월하며 인품이 아름다우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자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 예배를 통해 한국과 타국, 타주에 계신 목회자들과 선교사, 성도님들께서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선원 100명과 현지 선교사님 7분과 은퇴 선교사 20분에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방법: 현금, 헌신(선물포장), 헌물(옷, 양말, 모자, 과자, 불펜)
문의: 남상권 목사 213.800.3651

매월 둘째주 금요일 7:30PM
특별한 저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1월 18일 최 훈 목사(주님의교회)
12월 16일 권도근 목사(나들목 비전교회)

예배 시간	Anointing Education Dept.
새벽예배 (화~금)5:30AM, (토)6:30AM	Worship Time Sun 10:30 AM
수, 금요일예배 7:30 PM	Bible Study Sun 1:00 PM
주일예배 1부 8:00 AM	
2부 10:30 AM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유튜브 검색 -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담임목사 남 상 권 213.800.3651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푸틴의 핵 위협, 아마겟돈 전쟁일까?”...그렉 로리의 대답은

CP 칼럼서 “위협 실제적이나 종말론적 전투 아냐”

미국 캘리포니아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 교회 담임목사인 그렉 로리(Greg Laurie)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아마겟돈이 가까이 온 것일까?’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지난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경고한 발언을 인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민주당 상원 선거위원회 행사에서 “핵 ‘아마겟돈’의 위협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어 “케네디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우리는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며 “푸틴의 군사력이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위협은 현실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로리는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세계 지도자가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주목한다”며 “여기에 더해 미국은 방사능 방호 약품에 2억 9천만 달러를 지출했다. 위협은 묵살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단독으로 실행에 옮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벙커에 고립된 채, 그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한 뒤 점점 더 편집증적이

고,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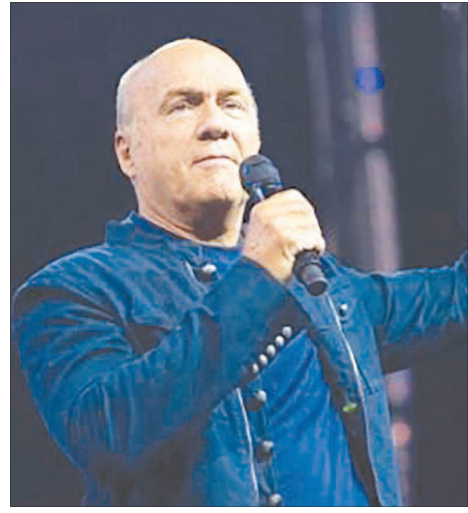
그는 “세계 지도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잠재적인 아마겟돈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아마겟돈에 대해 로리 목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인류가 직면할 최후의 종말론적 전투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면서 단어의 유래가 “예상되는 전투 장소인 므깃도 산(Mount Megiddo)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하르마게돈(Har-Magedone)’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푸틴의 위협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것이 성경의 아마겟돈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그 일은 성경에서 7년 대환난기라고 부르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러질 일련의 전투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고 정의했다.

또 “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이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이 갈등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2018년 1월 13일, 미국 하와이 주에서 긴급 경보 시스템을 통해 각종 매체에서 거짓 탄도 미사일 경보가 울린 사건을 소



그렉 로리 목사. ©하비스트 미니스트리

고 말했다”고 했다.

로리는 “언젠가 핵 위협이든, 개인적인 위협이든 실제 위협은 찾아올 것이다. 심장마비나 교통사고일 수도 있다”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도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셀러처럼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약 2000년 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구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곳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당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당신 대신 죽으셨다”면서 “그리고 사흘 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자 죽음은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내세를 보낼 것을 알 수 있다. 그 지식으로 우리는 다른 이에게도 같은 희망의 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어떤 비상 상황이든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백악관에서부터 그 아래에 위치한 우리 지도자들이 이 갈등을 즉시 축소시킬만한 모든 일을 하기를 기도한다”며 “하지만 남은 우리들은 영원을 어디서 보낼지 아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라고 권면했다. 김진영 기자

개했다. 당시 첫 경보는 오전 8시 7분에 시작되었고, 38분 후 ‘거짓 경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해프닝은 끝이 났다. 사건 직후 하와이 긴급 사태 관리청은 훈련 교대 근무 중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공식 해명했다.

로리 목사는 “비상경보 당시, 오아후 섬에 있던 친구 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앙 때문에 침착하게 반응했다”며 “긴급경보 후, 그녀의 이웃들은 오아후 북쪽 해안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달려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그러자 셸리는 “저는 그들과 함께 기도했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아는 것이라

5800만 美 기독교 유튜버, 가족 친화형 본사 세운다

듀드 퍼펙트, 대형 엔터테인먼트 시설 건립 예정

미국의 유명 스포츠 코미디 그룹인 듀드 퍼펙트(Dude Perfect)가 가족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오픈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듀드 퍼펙트는 지난 달 트위터에서 향후 프로젝트의 방향과 특색있는 시설들에 대해 소개했다.

이들은 본사에 100미터(330피트) 높이의 트릭 샷 타워를 비롯해, 미니 골프장, 트릭 샷 타운, 듀드 퍼펙트 박물관, 2400여 평(2에이커) 규모의 야외 공간, 상품 매장 및 레스토랑 등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글을 올렸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주간지인 버라이어티(Variety)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듀드 퍼펙트와 텍사스 소재 샌안토니오 건축회사인 오버랜드 파트너스가 공동 작업하여 1년 넘게 진행해 왔다.

오버랜드는 프로젝트 설명문에서 “불가능한 샷으로 알려진 종류를 구현하고자, 현장에서 역동적인 100미터(330피트) 경사의 타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내부는 방문객들이 도시 전망으로 둘러싸인 여러 층을 지나, 탑 꼭대기에 올라 볼 수 있는 멋진 전망을 제공한다”면서 “곡선형의

천 구조물이 캡슐처럼 둘러싸인 상징적인 타워는 듀드 퍼펙트의 중심 표지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체 시설의 완공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SBJ)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프리스코에 본사를 둔 듀드 퍼펙트는 노스 텍사스,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중 한 도시에 시공할 것을 고려 중이다. 달러스 모닝 뉴스(DMN)는 프로젝트의 건설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예상했다.

텍사스 A&M 대학의 룸메이트였던 타일러 토니, 개릿 힐버트, 코디 존스와 쌍둥이 형제 코리와 코비 코튼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2009년 유튜브에 트릭 샷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이후 그들은 5,8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채널 중 하나로 성장했다.

또한 이 5명은 공식 웹사이트에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과 사명 선언문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여러분이 알고 사랑하시는 장편 서사와 같은 역사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에게 다가가는 세계적인 놀라움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듀드 퍼펙트



5800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인기 코미디 그룹인 듀드 퍼펙트(Dude Perfect). ©듀드 퍼펙트 페이스북

에는 단순한 재미 이상의 것이 있다. 우리 일원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신난다”라고 공개 영감을 돌리려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김진영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 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글루콘산 아연 + 크롬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홍화씨유

달맞이꽃 증자추출물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결합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美 목회자 52% “경제가 교회에 부정적 영향”

소득 감소보다 지출 증가 탓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경제가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출판기관인 라이프웨이(Lifeway)는 최근 개신교 목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경제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고, 이는 2021년보다 15%p 늘어난 수치다. 응답자의 40%는 “경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7%는 “경제가 교회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했다. 절반 이상의 목회자들이 “경제가 교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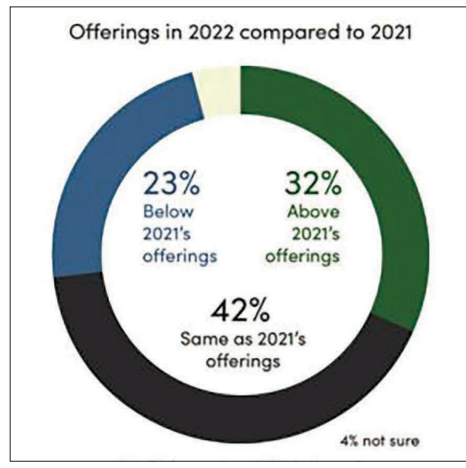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 10% 미만의 목회자들이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현금이 최소한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회자 10명 중 7명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산에 따라 이뤄졌거나 초과했다고 답했다. 46%는 “현금이 예산에 따라 이뤄졌다”고 답했고, 23%는 “현금이 예산보다 더 많다”고 했다. 목회자 10명 중 3명(29%)은 현금이 예산보다 적다고 했다.

목회자 4명 중 3명은 2022년 현재까지 현금이 2021년 수준 이상이라고, 42%는 전년과 동일하다고, 32%는 전년 이상이라고, 23%는 전년보다 적다고 답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의 스콧 맥코넬(Scott McConnell) 전무는 “경



대부분의 교회 현금이 전년 예산과 비슷하거나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리서치

제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가 나빠지는 것은 소득 감소보다 지출 증가에 더 가깝다”며 “연간 현금의 감소는 전체 교회 중 25%에 해

당되는 요인이었으나, 이는 10년간 교회의 평균과 비슷한 비율”이라고 말했다.

출석 교인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교회 목회자들은 경제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61%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교회 목회자들은 출석 교인이 100명 이상인 교회보다 현금이 예산과 같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올해 현금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반면 250명 이상 규모의 교회 목회자들은 “올해 지금까지 현금이 작년 수준보다 높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맥코넬 전무는 “출석 교인이 50명 미만인 교회는 교회 (운영) 비용을 총담당 사람이 더 적다. 비용이 오르면 그 비용 부담을 분산시킬 사람이 줄어든다”고 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2%p였다. 강혜진 기자

대학생 선교단체 IVF 데이비드 하워드, 최근 별세



젊은 날의 데이비드 하워드 ©wheaton college 홈페이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대학생 선교단체인 인터발서티(InterVarsity, 대표 탐 린)에서 다수의 얼바나(Urbana) 컨퍼런스의 감독과, 라틴아메리카 선교회의 회장이자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감독으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하워드(David Howard)가 지난 9일 별세했다.

탐 린 대표는 “인터발서티는 데이비드와 그의 리더십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며 “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계적인 사역의 초점과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갖게 했다. 그의 유산은 ‘얼바나 학생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 그들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세계 선교의 소명을 받아들이 수 백만명의 학생들이다. 인터발서티는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했다.

인터발서티는 “데이비드 하워드는 그의 친구이자 미래의 매형(혹은 매제 brother in-law, 아내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인 선교사 짐 엘리엇(Jim Elliot)과 1946년 처음 얼바나 컨퍼런스에 참여했으며 이후 50년의 세월 동안 컨퍼런스에 참여했고, 말씀을 전했고, 감독으로까지 섬겼다”고 했다.

이어 “데이비드는 1949년 휘튼칼리지를 졸업하고, C. 스테이시 우즈(인터발서티의 첫 대표)가 그를 인터발서티의 스태프로 고용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를 돌며 120개의 학교에서 그들의 삶을 선교에 헌신하기로 도전했다. 그리고 그는 휘튼대학교 졸업 후 과정(Graduate school)을 밟고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시간제 스태프로 섬기기도 했다”고 했다.

인터발서티는 “콜롬비아에서 15년 동안의 선교사역 후에, 데이비드는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선교적 사명으로 부르고, 그들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 다시 그의 마음에 불어 넣으셨다”며 “그의 얼바나 컨퍼런스의 감독 책임 기간 중 참여 학생이 12,000명에서 18,000명으로 성장했으며 선교로 헌신한 학생들이 8%에서 50%로 성장했다. 또한 데이비드는 선교 헌신자들을 위해 교회들과 신학교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온 인터발서티의 선교 프로그램(Perspectives Program)의 모태가 되는 여름 선교 훈련 프로그램(Summer Follow-up Program)을 디자인하기도 했다.

2006년 인터뷰에서 데이비드는 세계 선교에 얼바나 컨퍼런스가 미친 충격을 회상하며 “나는 80개국의 나라를 방문했다. 내가 가본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만난 선교사역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바나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고백했다”고 했다. 이상진 기자

美 내슈빌 대학병원 “미성년자 성전환수술 일시 중단”

주민들과 주 의원들 반대에 따른 결정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의료센터(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 이하 VUMC)가 ‘성별 위화감’으로 고통받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주민들과 주 의원들의 반대에 따른 것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테네시주 공화당 대표 제이슨 재커리(Jason Zachary) 의원은 최근 내슈빌에 위치한 VUMC에서 받은 문서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했다.

VUMC 부사장 겸 의료 시스템 최고 책임자인 라이트 핀슨(Dr. C. Wright Pinson) 박사는 이 문서에서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전문협회’가 발표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임상 검토를 수행하는 동안, 18세 미만 환자에 대한 성별 확인 수술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핀슨 박사는 “VUMC의 정책은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수술이나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5명이 신체

절단 수술을 받았다. 모두 16세 이상이었으며, 생식기 시술을 받은 사람은 없었으며, 모두 시술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

또 “VUMC는 성별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춘기 전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 제공을 금지하는 테네시주 법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 9월 28일 재커리 의원을 비롯한 테네시주 공화당 하원의원이 밴더빌트 이사회에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수행되는 모든 영구적인 성전환 수술을 즉각 중단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의료 절차를 반대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더데일리와이어(The Daily Wire)의 맷 월시(Matt Walsh) 기자는 “밴더빌트는 약물을 사용하고, 화학적 거세를 하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중 유방 절제술을 수행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월시 기자는 병원 측이 어떤 식으로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청소년에게 ‘성별 확인 호

르몬 치료’ 및 ‘사춘기 차단제’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웹 페이지 내용을 공유했다.

또 밴더빌트의 의료법 전문가가 변형 수술 참여에 대한 ‘양심적 거부’ 요청을 ‘문제적’이라고 조롱하며 “이런 종류의 일을 하기 싫으면 이곳에서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영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밴더빌트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와 10대들을 대상으로 신체 절단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면서 발생했다.

최근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어린이병원(Children’s National Hospital)도 10대들을 대상으로 신체 절단 수술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했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절단 수술을 지지하는 이들은 성별 위화감이 있는 어린이의 정신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장기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엘라베마, 에리조나, 아칸소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이러한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텍사스주 켄 팩스틴 법무장관은 아동 학대의 한 형태로 분류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교통사고와 청소년 자살 급증하는데... 美 마리화나 합법화 논란

아칸소주 관련 법안 표결 앞두고, 허커비 전 주지사 “반대”

미국 아칸소주가 오는 11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마이크 허커비 전 주지사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마이크 허커비(Mike Huckabee) 전 주지사는 최근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아칸소가족행동위원회가 제작한 영상에 출연했다.

법안 ‘이슈4’(Issue 4)가 통과될 경우, 성인의 대마초 소유 및 개인적 사용, 그리고 허가된 상업시설에서의 대마초 재배 및 판매를 승인하게 된다.

허커비 전 주지사는 “이미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차량 사고와 몽롱한 상태로 일터에 나온 이들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슈4를 ‘비참한 제안’으로 규정하고, “우리 주와 시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오락용 마리화나의 일상화가 더 나은 것”이라는 주장을 거부했다.

정치 영역에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증진, 보호 및 강화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단체 AFCAC 역시 이슈4를 반대하고 있다.

AFCAC은 대마초 사용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브리핑을 준비했다. 그 중에는 ‘절제’의 미덕을 강조한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이 언급돼 있다.

AFCAC은 브리핑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기분 전환이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경고가 많이 나온다. 영으로 충만하면 절제력이 높아지지만, 마리화나를 사용하면 절제력이 줄어들고 결국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리화나는 세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긴박성을 둔하게 한다. 또 사람의 감각을 흐리게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가 제공한 별도의 문서에 따르면, 2012년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의 경우 마리화나가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25%를 차지했고, 청소년 자살률도 140%나 증가했다.

AFCAC의 또 다른 영상은 한 통계를 인용해, “부모가 마리화나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 그 자녀의 72%가 직접 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는 매달 어린이 8명 중 1명이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알래스카, 에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몬태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등 19개다.

‘토크 비즈니스 & 폴리틱스’(Talk Busi-



아칸소 가족행동위원회가 제작한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캠페인 영상 속에 등장한 마이크 허커비 전 주지사. ©동영상 캡처

ness & Politics)와 헨드릭스 칼리지(Hendrix College)가 실시한 2022년 9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칸소 유권자의 58.5%가 이슈4를 지지, 29%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12.5%는 미정이었다.

한편 메릴랜드,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유사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 정치인들이 마약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뿐이다. 유권자들은 미국을 마약 구덩이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인들에게 등을 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www.openstewardship.com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열리기를 *smile*

행복한 상상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2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화와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와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penstewardship.com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요강

신청기간

2022년 10월 17일 - 2022년 11월 23일

수혜단체 발표

2023년 02월 28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내실 곳

Open Stewardship Foundation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지원금 수혜단체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토)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섬김자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213)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에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헌신예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에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를 세울 때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r)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0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과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하신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진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기기도(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별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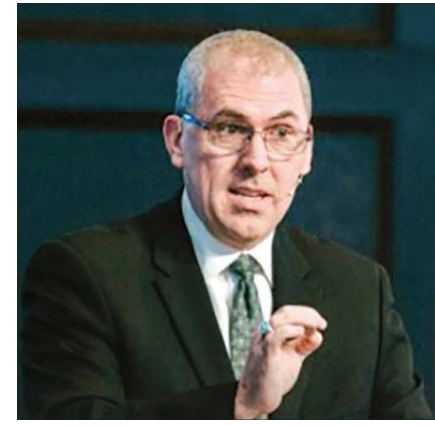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美 남침례회 총회장 “기독교 민족주의는 기독교 박해로 이어져”



미 남침례회 총회장 바트 바버 목사. ©Bart Barber 페이스북

내포한다”라고 밝힌 1802년 덴버리 침례교회 협회에 보낸 서한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편지에 있을 뿐”이라고 덧붙혔다.

진보적인 신앙 기반 변호사, 국회의원사당 내부 관계자, 목사 및 학자 그룹인 침례교합동위원회(Baptist Joint Committee)가 시작한 2019년 캠페인은 “기독교 민족주의는 기독교인과 미국 정체성을 병합시키려 하며, 기독교 신앙과 미국 헌법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남침례회 회장인 바트 바버(Bart Barber) 목사가 기독교 민족주의 옹호자들이 “교회가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제를 추구한다면 기독교인이 박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바버 목사는 미 CBS ‘60분’ 방송에 출연해 “그것은 400년 침례교 역사와 내가 믿는 종교자유에 반한다. 기독교의 지배, 정부 운영에 대한 교회의 지배라는 생각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기독교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Christians Against Christian Nationalism)이라는 단체는 “기독교 민족주의는 기독교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훌륭한 미국인이 되려면 기독교인이어야 함을 암시한다. 종종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적 지배와 오버랩된다. 우리는 이러한 해로운 정치 이념을 거부하고 우리의 신앙과 국가에 대한 위협을 반대하는데 기독교인 형제자매들을 초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것이 채택될 때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므로 반대한다. 또한 비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미국 남침례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바버 목사는 낙태, 동성결혼, 정치, 교단 내 성추행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바버 목사의 발언은 올 여름 “교회가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로렌 보버트(Lauren Boebert) 콜로라도주 하원의원과 같은 저명한 기독교인들의 발언에 이어 나왔다고 CP는 전했다.

바버 목사는 “지도자들이 (성학대) 희생자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했다”라고 밝혔다.

보버트 의원은 지난 6월 코너스톤 기독교 센터에서 전한 연설을 통해 “교회는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 정부는 교회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때때로 우리는 그들의 동기를 비난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을 공격했다. 제가 남침례회 총회장이 된 이유는 교회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버트 의원은 “이러한 교회와 국가 분리가 지겹다”라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미국 헌법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1조는 교회와 국가 사이 분리의 벽을

그는 “남침례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말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남침례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제공하려고 저를 부르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버 목사는 “성경적 가치에 확고히 서서,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훌륭한 기독교인이나 남침례교인이 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美 유명 만화, ‘레즈비언 여주인공’ 논란



스쿠비-두의 한 장면. ©Twitter/@MythicalLlamaXO

미국의 유명한 만화 시리즈 ‘스쿠비-두’(Scooby-Doo)가 동성애자를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구하도록 격려한다. 이후 벨마는 디아블로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각)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개된 ‘스쿠비-두’ 새 시리즈인 ‘트릭 오어 트릭 스쿠비-두’(Trick or Treat Scooby-Doo)에서 5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벨마(Velma)는 코코 디아블로(Coco Diablo)라는 새 여자친구에게 매력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스쿠비-두의 이전 시리즈 ‘스쿠비-두 2: 몬스터스 언리쉬드’(Scooby-Doo 2: Monsters Unleashed)에서 벨마는 한 소년을 짝사랑하는 인물로 나왔다.

트위터에 공개된 클립에서 자신의 팀에서 디아블로를 처음 만난 벨마는 “놀라운 거북목”에 “믿을 수 없는 안경”을 쓴 디아블로는 똑똑하고 동물을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고 말한다.

한편 지난 2019년 동성애 옹호 단체인 글래드(GLAAD)는 “2025년까지 TV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의 20%가 동성애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벨마는 안경이 낭만적인 열정으로 뿌연게 흐려지고,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인 “진키스”(Jinkies)를 외친다.

이어 2021년 디즈니는 동성 부모를 포함한 새로운 캐릭터를 내세운 애니메이션 시리즈 ‘더 프라이드 패밀리’(The Proud Family)를 다시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장면에서 벨마는 친구 다프네(Daphne)에게 “내가 농담하는 거지? 난 큰일을 치르고 있어, 다프네. 난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하지?”라고 조언을 구하고, 다프네는 그에게 디아블로와 만남을 추

또 2020년에는 레드비언 및 게이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단편 영화 ‘아웃’(Out)과 장편 영화 ‘온워드’(Onward)를 제작했다.

디즈니는 2017년부터 디즈니 채널 시리즈 ‘앤디 맥’(Andi Mac)에서 10대들의 동성 로맨스를 선보였다. 같은 해 개봉한 영화 실사판 ‘미녀와 야수’에 동성애자 캐릭터를 등장시켜 학부모들과 교계 인사들이 불매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이란 '히잡 미착용 女 의문사' 로 촉발된 시위서 185명 사망



이란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 의문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고 있다. ©UN

이란 인권 '조사 방해받아... 실제 피해 더 클 것'

이란에서 히잡 미착용 여성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최소 185명이 숨졌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은 대규모 시위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18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9일 밝혔다.

사망자는 이란 31개 주 가운데 17개 주에서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곳은 남동부 시스탄-발루치스탄, 북부 마진다란과 길란, 북서부 서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사망자의 과반이 여기서 보고됐다.

특히 시스탄-발루치스탄주 자헤단시 경찰국장의 15세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발생한 9월 30일 시위에서 90명이 사망했다. 이란인권은 이날이 금요일이었던

점을 들어 "자헤단의 피의 금요일"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인권은 "보고된 사망자 수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보안 문제와 인터넷 차단으로 방해받고 있다"며 "많은 사건들을 여전히 조사 중이며,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유엔 국제사절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며, 시위대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을 기소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구금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16일 숨졌다.

아미니의 유족 측은 "아미니가 심각한 구타로 숨졌다고 본다. 그러나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직후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돼, 대규모 시위가 4주째 이어지고, 해외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모잠비크서 '군인 위장' 무장괴한, 기독교인 11명 참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웹사이트

남플라, 카보 델가도 등 IS와 반군에 지배... 75만명 난민 대란

지난달 모잠비크 남플라 주에서 군인으로 위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군중 가운데서 기독교인 11명을 따로 분리한 뒤 참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모잠비크 북부 나칼라시의 알베르토 베라 아레졸라 주교는 지난 6일 고통받는 교회돕기(ACN)에 살인 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기독교인 생존자의 증언을 들려줬다.

당시 생존자는 주교에게 무장괴한들이 군복을 입고서, 사람들을 구하려 왔다고 말하면서 군중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레졸라 주교는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누가 무슬림이고 누가 기독교인인지 묻기 시작했다"며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이들의 손을 등 뒤로 걸박하고 목을 베었다"고 했다.

주교는 참수 살해가 "지난달 6일과 7일 밤 이틀에 걸쳐 발생했다"며 "총 11명이 살해되었고 파괴의 흔적과 큰 공포를 남겼다"고 전했다.

ACN의 보도에 따르면, 무장괴한들은 지난달 6일 치펜 시의 나칼라 가톨릭 교구를 습격해 교회와 학교, 보건 센터, 주택, 도서관, 차량 등을 살살이 뒤진 후 건물마다 불을 질렀다. 이러한 공격은 5시간 동안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이탈리아인 수녀 마리아 데 코피(83)가 사망했다.

아레졸라 주교는 숨진 코피 수녀에 대

해 "어머니와 같은 분이였다. 소박한 사랑과 겸손으로 진정 모든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며 "우유와 밀가루가 있는 작은 방에서 영양실조 아동들을 돌던 간호사였지만, 괴한들은 그 방마저 파괴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무장괴한들은 모잠비크, 르완다,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의 보안군으로부터 도망친 잔당일 가능성이 높다.

BBC에 따르면 최소 24개국 이 모잠비크의 반군과의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모잠비크의 군대는 현재 7천 명의 유령 병사를 보유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모잠비크 북부 지역은 수니파 무장 테러집단인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반군들로 인해 75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특히 모잠비크 최북단에 위치한 카보 델가도 주는 2017년 내전이 시작된 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세력권으로 전락했다.

당시 시위대는 카보 델가도 주가 가스, 루비, 흑연, 금 및 기타 천연자원이 풍부함에도, 수익의 대부분을 일자리가 없는 지역 주민이 아닌, 집권당인 프레리모당(Frelimo Party)의 엘리트층에게 바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은 "2017년 카보 델가도 지역에서 지하디스트 반군은 자원을 정부로부터 마을 주민에게 돌려줬고, 아무도 죽이지 않으면서 일부 주민들의 환심을 샀다"면서 "그러나 IS가 기독교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곳 주민들을 살해하기 시작하면서 인기는 지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ICC에 따르면 카보 델가도 주는 신앙을 이유로 최소 300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한 무슬림 중심지로 전락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공격 사례는 100건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12월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반군이 600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을 노예로 삼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학대를 받아 600달러에 성 노예로 팔렸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성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OC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평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성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19514 Redwood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9887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사우스베이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s.com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증고등부 예배 오전 8:40

대흥장로교회
파송거리,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9:30/2부 11:0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예 오전 10:2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일예배 오후 1:00, 금요일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 지역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일성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일요일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umc.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주일학교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7: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려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성회 오후 08:00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일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시, 목요일예배: 오후 7시, 목요일예배: 오후 7시, 목요일예배: 오후 7시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74

“목회자 비전스쿨에서 마포삼열 선교사님 묘소 방문하다”

지난 17일 엘에이 목회자 비전스쿨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산타바바라 지역 카운티에 공동묘지에 있는 마포삼열 선교사님 묘소를 방문하였다. “2023 미주 목회자 연합 비전스쿨 캠프”를 개최하기로 정하면서 마포삼열 선교사님 묘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사님의 업적을 따르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Inter CP International(인터콕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비전스쿨”이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9주 과정으로 열린다. 그 기간에 참여하기 힘든 목사님들을 고려해서 이번 “목회자 비전스쿨”을 3박 4일로 단축하여 진행하면서 미주 연합으로 함께 합숙하며 하자는 제안이 채택된 것이다. 이에 엘에이 목회자 비전스쿨을 섬기는 봉사자 13명이 우선 헌신하였다. 그들이 뜻을 모아 이번 묘소 방문을 하였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조선 말기 1890년 26세의 나이로 미국 북장로교 파송을 받아 우리나라로 들어 왔다. 1936년 일본의 암살 위협 가운데 잠시 미국으로 피신할 때까지 47년간 한국 선교사로 사셨다.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한국인 최초의 7인 목사를 배출하였고 그 후 수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을 배출하였다. 그분이 양육하여 안수한 목사 중 한석진, 길선주, 이기풍 같은 목사들은 각기 수백 명의 후배 목사들을 배출시켰고, 수백 개의 교회들을 개척하는 등 실로 한국 기독교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인물들을 길러내셨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191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제1회 세계 선교사 대회” 때 한국 대표로 참여하여, 1,200여 명의 세계 선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시 이름도 알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기독교 교회 부흥의 열매들을 보고 하였다. 한국인들의 우수성과 신앙심, 그리고 자립하겠다는 독립 의지 등을 말하면서 전 세계 선교 지도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분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엄청났다.

필자는 2004년도에 잊혀졌던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묘소가 은사이신 서정운 목사님을 통해 발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 급

히 교인들에게 광고하여 100여 명이 넘는 교우들이 곧바로 다음 주일에 묘소 방문을 하여 예배를 드렸었다. 그때는 4남이신 마포삼열 선교사님(아드님도 한국 선교사 역할)이 90세의 연세로 우리의 방문을 환영해 주셨다. 그분의 회상으로 3.1운동 때 시가지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님이 슬피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을까? 일본 군인들의 총칼에 맞아 죽어 가면서도 마치 양처럼 반항도 않고 만세만 부르다가 쓰러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셨다 했다. 필자의 교인들은 모두 눈시울을 적시며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다.

그 후로 필자는 기회가 되면 주변의 목사님들과 방문하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이 묘소를 방문하고 있다. 이곳을 다녀간 분들은 자기의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며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우리 민족 사랑을 본받아 자기들이 섬기는 민족들을 향한 사랑의 구령 열정이 더 깊어진다는 인사를 전해 들곤 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양화진에 묻히신 300여 명의 선교사님, 그 자녀들... 그리고 한국 곳곳에 묻힌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도 동역자들과 함께 묘소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의 예배와 기도를 올리고 돌아왔다. 히브리서 11장 33-38절의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메시지를 선포했다. 서부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교회적으로 꼭 가보아야 할 미주의 성지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에드거 앨런 포는 나다니엘 호손 그리고 허먼 멜빌과 함께 미국 낭만주의 문학의 3대 거장으로 꼽힙니다. 그는 시인, 소설가 그리고 문학 평론가로 살았는데 각 분야에서 상당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일생을 정리하면 불행하게 태어나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은 문학 천재입니다. 문학적으로 크게 인정받았지만 그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에드거는 1809년에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가난한 연극배우들이었습니다. 에드거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나가버렸고 에드거 두 살 때 어머니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고아가 된 에드거는 버지니아주에 사는 부호 존 앨런 가에 위탁되었습니다.

존 앨런과 프린세스 앨런 부부에게 위탁 양육되었습니다. 존 앨런 부부는 에드거를 공식으로 양자로 삼지는 않았지만, 친아들처럼 길렀고, 에드거 포에 ‘앨런’을 추가해 에드거 앨런 포로 불렀습니다. 에드거는 양부모 지원으로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명문 버지니아 대학에도 다녔고 육군 사관학교에도 입학했지만 중도에 포기합니다. 에드거는 공부를 잘했지만 폭음을 했고 도박에 막대한 돈을 잃는 등 무절제하게 살았습니다.

에드거는 젊은 날 시들을 발표해 주변과 문단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관학교 동기생들은 에드거의 습작 시들을 인정해서 동기생들이 초급 장교시절 돈을 모아 시집 출판을 도와줬습니다. 그가 주변에 시인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1845년에 발표한 《까마귀 (Raven)》는 미국인의 애송시입니다.

초기에 시문학에 집중하던 포는 중간에 산문문학으로 관심사를 돌렸습니다. 그가 쓴 단편소설들은 미국의 낭만 문학을 대표하고 그가 시도한 추리 소설적 기법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추리소설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추리소설의 새로운 장을 엿니다.

그의 단편 소설 가운데 잘 알려진 작품이 《검은 고양이》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미국 사회가 추구한 가정 중심의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소설은 인간에 내재된 악함과 탈 윤리적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까발린 작품입니다. 소설 《검은 고양이》는 교수형을 하루 앞둔 주인공 ‘나’의 자기 고백록입니다. 주

인공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유순하고 사려 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그는 한동안 행복한 가정에서 동물들을 기르며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주인공 ‘나’는 일찍 결혼했고, 그와 아내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나’는 검은 고양이를 기릅니다. 고양이는 ‘나’의 애완동물이요, 친구요 장난감입니다. 하지만 ‘나’는 폭음 때문에 괴팍해지고 침울하고 쉽게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혀 야랑곳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느 날 만취해 집에 들어온 ‘나’는 우발적으로 고양이 한쪽 눈을 도려냅니다. 한쪽 눈을 잃은 고양이는 주인공을 슬슬 피하고, 이를 지켜보는 ‘나’는 자신을 혐오하는 고양이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습니다. 고양이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양이 목을 나무에 달아 죽여 버립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집 전체가 불에 타는데, 한쪽 벽만 타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 벽에는 목에 고리가 걸린 듯한 고양이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악몽에서 빠져나온 ‘나’는 고양이를 잃은 안타까움과 회한을 갖고 다른 동물을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후 술집에서 죽은 고양이와 닮은 고양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죽은 고양이와 너무나 닮은 두 번째 검은 고양이를 보며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는 ‘나’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화재 후 점점 예민해진 ‘나’는 주사가 심해지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두 번째 고양이의 목에 생긴 흰 반점을 ‘교수대’로 연상하는 환각 상태가 되어 고양이를 죽이려 합니다. 어느

날 도끼를 들고 고양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립니다. 그때 ‘나’는 아내를 죽입니다. ‘나’는 아내의 시체를 지하실 외벽과 내벽 사이에 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서 범행을 완전하게 감춥니다.

하지만 ‘나’의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많은 사람의 궁금증을 낳았고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와 조사를 하였지만, 아무런 단서도 못 찾습니다. 허탈하게 나가는 경관을 보며 허세를 부립니다. 벽을 툭툭 치며 “이 벽들은 단단히 바라졌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벽에서 기괴한 고양이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이를 수상쩍게 여긴 경관들이 벽을 허물자 그 안에서 아내의 시체와 산채로 묻힌 검은 고양이가 발견되어 범행 일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소설 《검은 고양이》는 당시 시대상과 에드거 앨런 포의 개인적 삶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에드거 앨런 포가 가진 삶의 상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작품의 주인공 ‘나’의 기괴한 행적을 통해서 도덕심과 이성으로 통제되는 절제미를 잃어버린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설 ‘검은 고양이’가 전해주는 메시지들을 정리합니다.

첫째, 검은 고양이는 ‘가정의 행복’을 보여 줍니다. 주인공 ‘나’가 보여주는 결혼 초기의 단란한 가정의 모습은 가정의 행복을 설명합니다. 주인공 ‘나’가 이상한 성격을 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이전까지의 모습은 전형적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검은 고양이는 ‘인간의 악함’을 보여 줍니다. 가정의 행복을 깨는 악함입니다.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것이 ‘나’의 악함이 드러나면서 시작됩니다. 각 인간 속에는 내재된 악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에드거는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각 인간 속에 내재된 죄업 본성을 고발합니다. 특히, 첫 번째 고양이를 죽인 후 나아가 아내를 죽이고도 죄책감 없는 뻔뻔한 모습은 악함의 끝을 보여 줍니다.

셋째, 검은 고양이는 ‘죄는 드러남’을 웅변합니다. 시멘트로 벽을 만들어 완전범죄를 꿈꾸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죄가 드러납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죄는 노출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AACS 인증
- 미국정주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일일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u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AAC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l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6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장재호 목사의 은혜의 샘

가정천국 영적 공동체(2)

시편 128:1-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2.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나 잘 익은 포도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맺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믿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잘 영글었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자기 믿음만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힘도 없이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영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태어난 어린 자식들 까지 성령이 충만한 영적 자녀들로 잘 양육 했다는 말씀입니다. 끼니 때 마다 밥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을 때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더 잘 섬기고픈 소원 그런 가정을 모신 대다가 그 가장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과 가정에 함께 해 주심으로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은 행통하도록 해서 내가 수고한데로 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분복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포도송이처럼 아주 알차고 탐스럽게 잘 영글은 결실한 그런 모습이고 자녀들도 어린 감람나무처럼 순수하게 자기 의지나 주장이 없이 완전히 성령에 점령되고 충만한 모습으로 표현하며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진리 정통한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 가정천국을 이끌어 가고 있고,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는 그 진리 정통한 믿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탐스럽게 결실해 잘 영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내외가 믿음이 아주 모범적이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로 실천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불찌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찌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다윗을 통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적 지시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 것들이 곳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라. 영적으로는 신약시대의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정통한 교회를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진리 정통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한 신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픈 신앙심에서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복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교육과 훈련을 바로 그가 속한 진리 정통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드나들면서 영적지도를 목자로부터 제대로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파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가정을 이끌어 가며, 그 가장의 신앙이 신앙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아내는 잘 영글은 포도송이 같고, 어린 자식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어린 감람나무 같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영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곳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천국을 이루어 주는 곳이 어디냐. 그들이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3.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는 곳에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천국을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합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나를 천국 문턱에서 쫓아내실 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 사실이고, 권능을 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와 영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적 성과를 위하여 애써 활용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사용 했어야 했는데 인간의 명예와 실속을 챙기는데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바깥 어두운 곳에 너를 내치리니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아내는 잘 영글러 진리와 성령으로 탐스럽게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되어야 하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성령이 충만한 영적 소망을 가진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에 이끌리며 그 목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새 출발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아내는 잘 영글어 진리와 성령으로 탐스럽게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돼야 하고 자녀들은 성령이 충만한 영적소망 충만한 자녀들이 됐다고 하면 가정은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복을 누리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 있게 쓰임 받는 복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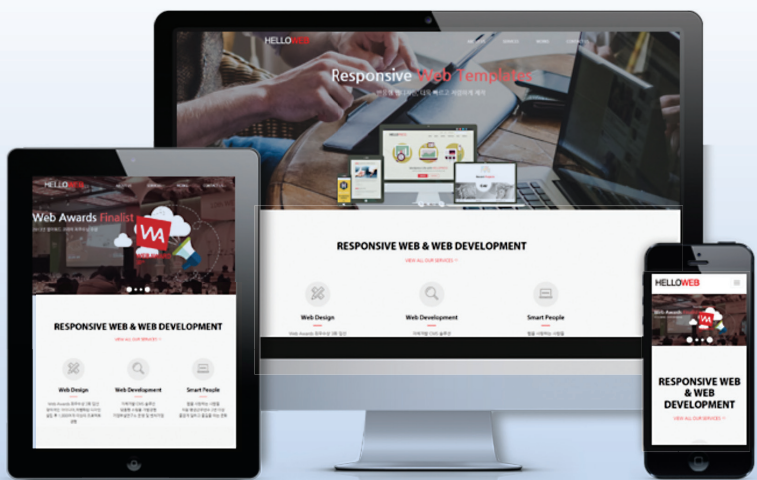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 게시판 / 갤러리 / 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 게시판 / 갤러리 / 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컨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강준민 칼럼

마음을 지키고 가꿀 줄 아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생명의 근원”을 “생명의 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생명의 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추인 생명의 샘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의 샘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이나 지키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지킵니다. 가치있는 것을 지킵니다. 지킨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지킵니다. 가정을 지킵니다. 우정을 지킵니다.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지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볼 때 잘 볼 수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럼 비밀을 가르쳐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은 창과 같아서 더러워지면 잘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을 닦는 것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천상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늘의 생수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마음의 창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이 마음을 적실 때 우리 마음은 정결케 됩니다.

마음은 정원처럼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은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정원처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잡초로 무성하게 됩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화초는 잘 가꾸어야 아름답게 자랍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나쁜 씨앗을 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은 땅처럼 정직합니다. 심은 씨앗의 종류와 씨앗의 양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할 씨앗은 말씀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의 씨앗을 잘 가꾸도록 하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마음의 정원에 심을 때 좋은 생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좋은 언어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눅 6:45).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말씀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 영혼을 지켜줍니다. 우리 영혼을 부요케 합니다. 진정한 부요는

영혼의 부요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날마다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분주하고 산만한 사람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잠시 멈출 줄 알고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꾼다는 것은 고요한 마음을 가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고요한 행복을 낳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침묵을 통해 가꿀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고요한 마음을 가꾸는 길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한 호수처럼 우리 마음은 맑고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서두르는 사람은 두려움에 쫓기게 됩니다. 속도란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멈출 줄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멈추지 못합니다. 잠시 멈추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시 멈추어 마음을 고요한 마음을 가꾸십시오. 고요한 마음을 가꾸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요함을 선물해 주십시오.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함은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구봉주 칼럼

가까운데서부터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지난 팬데믹 중,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개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1회이지만, 2달치 정도의 렌트비를 후원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우리 교회만 아는 사실로 하고, 어떤 곳에도 소문을 내거나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팬데믹 중에 한 일이라,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인교회는 가까이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이 곧, 선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독교일보 대표를 맡고 계

신 이인규 목사님을 통해, WE BRIDGE라는 사역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이름을 풀이하면, “다리를 놔 드리는 사역”, “서로 연결해 드리는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후원교회를 찾아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한달에 500불씩 3년 동안, 후원하도록 연결해주는 사역입니다. 위 브릿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 사역이 팬데믹 중에 우리 감사한인교회가 했던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들을 후원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저희 교회가 두 교회를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도 후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50개 미자립 교회 중, 30개 교회는 후원교회를 찾았고, 20개는 아직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도해주시고.

그런데, 또 최근에 위 브릿지 사역에 있었던 감동적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 브릿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어떤

권사님께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신 가운데, 한 교회를 3년 동안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수년 전에 남편이 일하시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 이후로 권사님 남편은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급기야 최근 2년 전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혹시 갑자기 일어날지 모를 남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400불 보조금을 15개월 동안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브릿지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신 권사님께서 모인 6000불을 모두 헌금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결정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 교회를 후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한 교회를 3년을 꼬박 후원하겠다고 다시 연락이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 브릿지 사역과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와 구제, 그리고 선행,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

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가까운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 가서 선교하는 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구제의 일들을 보면서, 감히 엄두를 못 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그리고 작은 재정이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하고자 하는 마음의 헌신입니다.

만약, 주님을 섬기고 싶으시거나, 내 인생에 진정한 목적을 찾고 싶으시면,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데서부터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가까운데서부터 선교하고 가까운데서부터 전도하고 구제하십시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을 뿐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고자 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릴 사용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버지니아 헬로쉽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전 담임 목사님의 타 지역 이임으로 인해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 합니다.

1. 지원자격:

- 언어: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가능하신 분
- 신분: 미국체류 및교회 근로에 결격의 사유가 없으신 분 (영주권 이상 소지)
- 학력: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정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경력: 목사 안수 후 5년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2. 제출 서류:

- (서류작성 내역은 버지니아 헬로쉽교회 웹사이트에서 [청빙서류작성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참조하십시오)
- 이력서 1부 (버지니아 헬로쉽교회 양식 다운로드)
- 자기 개인 간증 및 소개서 1부 (가족소개 및 사진 포함)
- 사모님 신앙 간증문 1부
- 목회 철학 및 비전 1부
- 목회 계획서 1부
- 설교 동영상 2편 (1편은 최근 6개월이내 설교)
- 추천서 2부* (최소 1부는 목사님으로 부터)
- *추천서는 담임목사후보가 아닌 추천인이 직접 아래 청빙 이메일로 송부해 주십시오.
- 목사 안수 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버지니아 헬로쉽교회 양식 다운로드)

3. 제출 마감: 2022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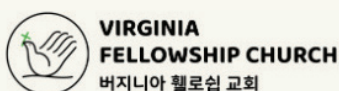
마감일까지 모든 제출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4. 서류 제출처: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pastorsearchvfc@gmail.com

• 서류 전형후 개별로 이메일 통지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5. 문의 및 연락처:

버지니아 헬로쉽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위원장: 김시홍(Sihong Kim)장로 (Email: pastorsearchvfc@gmail.com)



담임목사 청빙공고

뉴저지 Maywood에 위치한 주섬김교회는 (KPCA 해외한인장로회) 아래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후보 자격

1. KPCA 소속 목사님 또는 KPCA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신학 대학원 목회학 석사 M.Div 이상의 학위 소유하신 분
3. 목사 안수 받은 후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이신 분
4. 연세 만55세 이전이신 분
5. 한국어와 영어 의사 소통에 문제 없으신 분
6. 미국내 목회 활동에 법적 사유가 없으신 분

구비 서류

1. 이력서 (본인 및 사모)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3. 신앙 고백 1부
4.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5. 졸업 증명서 (대학 및 신학 대학원)
6. 목사 안수 증명서
7. 추천서 2부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 요망)
8. 최근 설교 온라인 링크 또는 CD (3부)

제출 마감: 2022년 12월 18일 까지

제출처

1. servinggodfellowship@gmail.com
2. 수신자 청빙 위원장 어용호 전도사
3.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일에만 사용됩니다.
4.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섬김교회



김한요 칼럼

나라 걱정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코로나 이후, 우리는 많은 변화를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9.11 사태 이후,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공황이 그 중 단연 1등이죠. 지금도 물을 가지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신발을 벗고 회전링 안에 들어가 두 손을 투항 하듯 들고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항 게이트까지 가서 배웅하고 마

중하는 일은 기억도 나지 않은 옛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는 아예 공항도 갈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비행기를 탈 때, 마스크를 끼고 타는 것이 정상이 된 상황입니다. 여행의 필요는 더 많아졌지만, 여행은 더 불편해졌고, 여행 경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 발발 전쟁으로 핵전쟁의 불안이 있고, 북한은 이에 부채질 하듯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은 한국내 비행장을 무력화하는 목적으로 전술 핵탄재를 모의 탑재하고 쏜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이달 10월에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SRBM 두 발을 쏜 것과, 4일에는 일본 열도 너머로 약 4500 킬로미터를 날아간 신형 지대지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 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8일에는 동해에 재진입한 미국의 항공모함 등 연합군 해상훈련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150여대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 시킨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시대가 엘리자 선지자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전 7-8세기 맹위를 떨치던 앗시리아가 세력을 잃어 유브라데스강 상류에도 못미치고,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이집트의 막강 세력도 위협이 되지 않던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있는 오므리-아합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예후의 쿠데타로 오므리 왕조는 무너지고 아람의 벤하트 2세를 암살하고 권

력을 잡은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나라는 마치 핵무기 앞에서 무릎을 꿇듯, 군비통제까지 받는 굴욕을 받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약소국의 서러움에 의지할 곳은 하나님 밖에 없는 상황에 엘리자 선지자는 중병으로 임종하게 됩니다. 그때 요아스 왕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올라갈 때, 엘리자 선지자가 외쳤던 말과 똑같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엘리자 둘 다 말씀의 종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 무기, 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는 말씀에 더욱 붙들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 만이 살 길입니다.

박동식 칼럼

교리 위에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



박동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독서 모임에서 존 파이퍼가 쓴 『존 파이퍼와 떠나는 칼빈주의 여행』(Five Points)을 읽었다.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즉 TULIP을 다룬 책이다. T는 Total Depravity(전적 타락), U는 Unconditional Election(무조건적 선택), L은 Limited Atonement(제한 속죄), I는 Irresistible Grace(불가항력적 은혜),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성도의 견인)를 의미한다.

파이퍼는 ‘전적 타락’을 설명하면서, 불신자들이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코 의롭지 않”고 “진정으로 선한 행위로 간주 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파이퍼가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이 말은 비기독교인에게 할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기독교인인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선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우상이라고 말이다.

믿지 않은 이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조차 선하지 않다고 간주한다면, 믿지 않은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공

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 선은 오로지 기독교인만이 행하는가? 이런 식의 교리 해석이 기독교에 도움이 될까?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선한 행위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악한 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칼뱅의 일반 은총의 기본 전제마저도 흔드는 해석 아닐까.

예컨대,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은 그가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인가?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위를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린 제사장과 레위인, 즉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와 명백히 대조시켜서 보여주다. 영생을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너도 그와 같이 하라’(눅 10:37) 하신 주님의 원래 의도는, 믿음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라는 실천적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접촉점이 있을 수 있다.

다윗은 ‘암몬 자손인 하늘의 아버지 나하스가 이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하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하고는 신하들을 보내 나하스를 조문하게 한다(삼하 10:2). 이것이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태도 아닌가.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야 한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도움을 받지 않는가.

거듭 말하지만, 비판의 화살은 기독교 내부로 돌려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가. 교리 해석이 상식을 무너뜨려서도 안 되며, 교리 해석에 복음을 끼여 맞춰서도 안 될 것이다. 믿지 않은 이들이 행한 선한 행위를 선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상식이며, 그 상식이 믿지 않은 이들과의 접촉점을 만들어 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복음과 선교의 문도 그런 다음 열릴 것이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Coffee Bean에 가서 African Sunrise 차를 주문했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몇 주 갔더니, 일하는 이가 내가 주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너 그거 주문할 거지?’ 하며 바로 알던 경우가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든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공통분모가 형성된다.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과 자주 만나 공통분모를 찾았으면 한다.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공선을 이루어가는 출발 아닐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과도 만나 대화하고 또 대화하다 보면 세상을 이롭게 할 접촉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물론 믿지 않은 이들의 선한 행위는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부어 주신 것이다.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임하는 일반 은총이 있다. 그러나 이 은총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해야 한다. 파이퍼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자연적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들을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거나 세속적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신을 추구하는 것이지, 참되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회심의 은혜가 없으면 참되신 하나님께

로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다.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는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한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교리가 도그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특정 교파가 만든 교리로 크신 하나님의 속성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교리의 도그마는 참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파와 자기를 높이는 것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사심자용(師心自用), 즉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 아닌가. 우리가 지키는 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신학 공부에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신학 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설교를 통해 들어왔거나 선교 단체에서 배워왔거나 개인 공부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확인 받는 과정만은 아니다.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중 그동안 몰랐던 것을 배우면 ‘내가 모르는 것이 있네, 들어봐야겠구나’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은 이상 신학 공부는 늘 도그마에 갇혀 있기 십상일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눅 3:21). 신학 공부에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자. 이는 신학의 답이 땅 위에 사는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릴 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신학만이 정답이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겸손 하자. 복음은 은혜로운데, 기계적 교리 이해는 결코 은혜롭지 못하기에, 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o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이성구의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다양하게 읽으면, 그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통찰하는 눈 갖기



소설 읽는 신자에게 생기는 일
캐런 스왈로우 프라이어 | 홍종락 역
무근검 | 400쪽

무근검이 소개하는
'잘 읽고 잘 사는 법'

위대한 책들을 통해
좋은 삶을 발견하기

당하는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12가지 특질들을 확장해 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은 다른 문학비평서와의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해당하는 여러 권의 책을 간단히 소개하고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맞는 한 권의 책만을 소개하다 보니 내용이 깊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에서 얻을 수 있는 뜻을 넓고 깊게 알 수 있어 강요하지 않아도 소개된 책들을 읽고 싶게 하거나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문학비평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문학과 신앙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성경과 강해서, 간증서 등으로 좁은 크리스천들의 독서 폭을 확장하여, 소설이나 시 등의 문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책도 당연히 이런 목적에 충실합니다.

문학비평서로 나쁜진 않지만, 아쉬운 점은 곳곳에 있습니다. 우선은 소개한 12권의 소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장(章)에 들어가는 서두에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이 12권의 소설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자의 주장에 빨려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내용이겠지' 하고 넘어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서에 없더라도 편집자가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가장 큰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12개의 교리와 이에 해당하는 소설 작품이 어떤 건 이해가 되는 반면, 어떤 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와 '절제'라는 덕의 연결성, <로드>와 '소망'이라는 덕의 연결성은 이해가 되지만, <천로역정>과 '부지런함'이라는 덕은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천로역정>은 '인내'가 맞겠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용기'라는 덕과 연결시켰는데, 그 또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소개한 12권의 소설들과 12개의 교리 중에서 받은 맞고 받은 의아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너무 장황합니다. 각 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일화와 주장을 몇 쪽에 걸쳐 한 다음 소설과 교리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게 맞다'고 우기는 부분들이 있고,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을 길게 늘이고 있습니다.

어떤 건 소설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더 강조합니다. 문학비평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으면 '문학'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교리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이 거의 대부분 영어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소설을 소개하니 당연히

소설 구절들을 인용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어 원서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어느 책의 어느 부분인지 알려줬다면, 소개한 책들을 사보고 싶은 욕구가 더 들었을 겁니다.

이 책의 원제는 'On Reading Well', '잘 읽기' 정도로 해석이 될 겁니다. 출판사에서 부제로 단 것은 'READ WELL, LIVE WELL'입니다. '잘 읽는다는 건 잘 산다는 것'입니다.

제목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지만, 저는 공감합니다. 다양하게 많이 읽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여유있게 합니다. 이 모든 삶 구석구석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는 걸 상기하자면, 다양하게 많이 읽은 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이 책의 한글 제목처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나 강해서, 간증서가 아닌 성경과 별개의 분야인 것 같은 소설을 읽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성경의 교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므로 내 삶에도 적용된 소설의 이야기가 발현될 수 있고, 현실을 폭넓게 대하며, 나아가 성경과 상관없는 글과 인식하지 못했던 현상도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찰하며 통찰하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 소설이 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쉬움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실망스럽지 않게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 이성구(서평가)



이 책이 소개하는 소설 중 한 권인 <침묵>을 영화화한 <사일런스> 중 한 장면.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너희는 의인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시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시어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상 12:24

But be sure to fear
the LORD and serve
him faithfully with
all your heart;
Consider what great
things he has done for you.

ISAMUEL 12:24

2022. 10
Y.H

40년 전통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let's go 이스라엘 성지순례

\$2,800 (전일정 항공포함)

예루살렘 7박8일

2월 20일 출발

베들레헴과 감람산과 갈릴리와 사해
다윗의 피신처, 유대광야와 만사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문의 : (213) 653-6489, (213) 819-5132
주관: 세기여행사, 파이오니아 여행사

*상기 상품의 일정과 비용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공고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 교단(PCUSA)에 속한 교회로, 이 지역의 우수 대학들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많은 학생들, 청년들을 전도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시고 복음중심적인 목회에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교회 소개 및 배경 설명: 아래 링크 참조
<https://tinyurl.com/5e7mz3pn>

자격

-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PCA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분
- 담임목사나 부교역자로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 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서; 목회 비전; 가족 소개서
-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원본은 청빙 수락 시에 요청합니다)
- 설교 2회분 (link):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은 1회분 추가
- 추천인 3인의 전화번호와 email 주소 (목회자 2인 포함)

제출 방법

- email to: s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바람

제출 마감

- 청빙이 완료될 때까지 (심사는 접수되는대로 시작함)

피츠버그 한인 장로교회
Pittsbur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글리치> (1)

넷플릭스, 또 반기독교? <수리남>보다 더한 <글리치>

이단 교주, UFO 납치 귀환자들 구원자로 내세워
오대양 집단자살, 다미선교회 휴거 소동 패러디
서구와 달리 한국은 기독교가 삶 지배하지 않아
넷플릭스 국내 작품 속 반기독교, 부자연스러워

◆넷플릭스와 반기독교: 사이버 종파를 통해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글리치>는 외계인과 UFO, 그리고 기독교 계열 사이버 종교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버디 무비(두 명의 주인공이 단짝 콤비로 활약하는 영화) 장르 드라마이다. <수리남>의 뒤를 이어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서, 두 작품 모두 기독교 계열 사이버 단체와 관련된 서사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 가운데서도 <글리치>는 <수리남>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비하하는 데 주력한다. 마약 범죄가 서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수리남>과 달리, <글리치>는 사이버 종교의 폐해가 아예 서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기독교인 시청자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작중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글리치>에 등장하는 종교단체가 정통 기독교 교단들과는 무관한 이단 종파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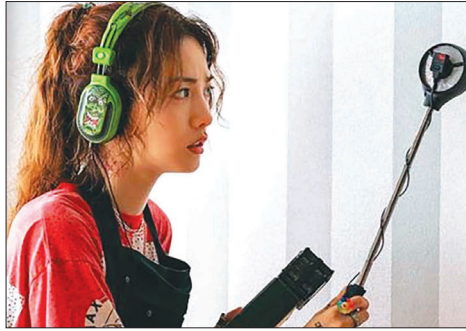
하지만 신앙이나 교회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글리치>가 풍자하는 미신적 행태가 사이버 종파뿐 아니라 정통 교회들도 비슷하게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기독교의 휴거 교리를 모방하고 자신들의 구원자를 '호산나'라고 부르는 데서, 이미 작중 사이버 단체의 기독교적 색채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진다.

<글리치>에 등장하는 '하늘빛들림교회'는 외계인의 UFO에 납치되었다가 돌아온 이들을 신의 사도 혹은 구원자로 내세운다.

교주인 쏘(김명곤 분)은 이 구원자들처럼 UFO에 의해 들러올림을 받기 위해 육체라는 껍데기를 벗어나야 한다며, 집단 자살을 유도한다. 하늘빛들림교회의 광신적 행태는 1987년 교주와 추종자들의 집단 자살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그리고 1992년 휴거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미선교회 사건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글리치>는 소재나 서사를 감안할 때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기 힘든 작품이다. 기존 공중파 방송국이었다면 기획 단계부터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황당하면서도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주인공 홍지효(전여빈 분)와 허보라(나나 분)가 좌충우돌하는 장면들은 밝고 코믹한 분위기를 유도한다. 그러나 사이버 종교의 어두운 일면에 대한



외계인을 숭배하는 사이버 종교의 비행을 파헤치는 두 주인공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 <글리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폭로 부분에서 이 작품은 급격하게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전환된다. 가볍게 드라마를 즐기고 싶은 관객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임에 틀림없고, 때문에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그리 열광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는 이 작품의 각본에 투자를 결정했다. 좋게 보자면 소재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겠지만,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자면 반종교 및 반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각본에 과감하고 꾸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확실히 넷플릭스는 흥행 위주의 작품과 메시지 위주의 작품으로 두 트랙 전략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이었던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처럼 작품에 담긴 메시지보다는 서사의 흥미에 주력하는 작품들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흥행 가능성이 낮더라도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다원주의 및 정치적 올바름(PC)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작품들을 제작·공개해 콘텐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넷플릭스와 반종교: 기독교 신앙에 지극히 편파적인 넷플릭스의 반종교 정서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른 어떤 방송사도 이룩하지 못한 문화적 영향력을 구축했다.

방송업계에서 비주류 영역에 머무르던 대중문화 요소들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특화시켜 단숨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자신들의 콘텐츠 제작 이념과 방식을 업계 표준으로 확립해 두었다.

여기에는 인터넷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기술의 빠른 발전과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라는 기술적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 물론 현재의 넷플릭스는 강력한 경쟁자들의 등장과



외계인, UFO, 그리고 사이버 종교 집단자살이라는 자극적 소재를 중심에 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글리치>.

OTT 서비스 시장 전체의 성장 정체로 인해 사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만, 넷플릭스의 사업모델과 콘텐츠 제작 철학은 앞으로 적어도 한 세대쯤은 OTT 업계 뿐 아니라 전체 방송 서비스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독교인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넷플릭스가 종교다원주의를 가장한 반기독교 이념을 조지일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에는 아주 약간이지만 납득할 만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 서구에서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교회와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향상은 아니더라도 자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개개인의 상상력과 삶의 다양성에 대한 억압을 몰지각한 처사로 여기는 다원주의 관점으로 볼 때, 도덕 실재론 관점에서 일관된 표현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기독교 문화는 일종의 고루한 전통으로 비추진다.

비슷한 경우로 우리 한국인들 역시 유교문화의 고루함과 과도하게 복고적 성향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다. 작년 개봉된 영화 <자산어보>를 보면 최근 한국인들이 유교 전통의 문제적 측면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뉴미디어 업계 인사들이 기독교 문화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이와 비슷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미국 편에서 제작된 작품들이 반기독교 성향을 보이거나 반종교 정서를 질게 드러내고 있을 경우, 그 제작자나 감독의 의도에 전부 다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들이 기독교 신앙 및 문화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자 작품의 메시지를 검토하게 된다.

최근 한국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에서 보이는 반기독교 정서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다. 서구에서 기독교 문화는 삶 전체를 지배하는 전통이자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에 대한 반성과 비판, 극복 시도는 문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일견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삶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한국 기독교인들은 삶 전체를 신앙의 원칙과 양심에 따라 영위하려 하겠지만, 국민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타종교인들 혹은 무종교인들은 주로 유불선(儒佛仙) 사상과 무속을 삶의 문화적 배경으로 삼아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작된 OTT 서비스 콘텐츠가 종교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경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종교문화적 배경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받은 넷플릭스 판타지 사극 <킹덤> 시리즈가 이런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나오는 종교 관련 내용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부 한국 기독교 및 기독교 계열 사이버 종파의 부당함을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이런 현상이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 배경이 기독교 신앙을 빼놓고는 논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사로 삼는 작품에서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기독교 신앙을 직·간접적으로 희화화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분명 편파적이다. 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에는 미국 기업 넷플릭스의 반기독교적 종교 이해가 반영돼 있다. <다음 편에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30**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환율변동)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KIDOK SHOP



오다가 주웠어



기독삼 10월

단체선물 특가전

준
짜
70% OFF

www.kidokshop.com



기독삼 바로가기

-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성도들을 위한

교회행사 기념품 상패 | 감사패 | 임직패

기독삼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Ch

기독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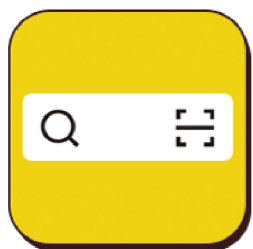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추가하세요!



step 1.
카카오톡 실행하기



step 2-A.
카카오톡 검색창에
기독삼 검색하기



step 2-B.
버튼 클릭 후
QR코드 스캔하기



step 3.
기독삼 카카오톡
채널 추가